

문헌을 통해 본 고대 부산의 대외교류*

백 승 충**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대 부산의 정치체 출현
- III. 삼한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 IV. 삼국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부산의 정치체의 출현 및 삼한~삼국시대의 대외교류의 성격과 그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선사시대 이래 부산은 해양성, 개방성, 그리고 낙동강을 통해 내륙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전근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전근대 부산의 중심지는 ‘동래’이고, 이곳을 관통하는 온천천은 수영강과 합류하여 동남해에 맞닿아 있는 수영만에 이른다.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고대 부산의 생업 조건은 대내 활동보다는 대외 활동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삼한·삼국

* 본 논문은 2019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 주최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학술대회 때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schbaek@pusan.ac.kr

2 항도부산 39

시대 고대 부산과 김해는 정치적으로 일종의 ‘연합’을 맺어 대외교류 활동을 주도하였다.

삼한·삼국시대 부산은 ‘독로국’과 ‘거칠산국’이라는 지역 단위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다. 특히 삼한 시기 즉 초기 가야 때의 부산의 독로국은 인접한 김해 구야국과 함께 ‘철 소재’를 매개로 한 대외적인 교류 활동인 ‘중계교역’의 중심지였고, 그 대상 범위는 동북아 전체를 통괄하였다. 이것은 초기 가야가 신라 보다 정치·문화적으로 앞설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4세기 들어 삼국시대의 고대 부산은 한군현의 소멸 및 삼국의 정립 속에 종래의 대외교류의 성격은 유지하지만 일본열도로 한정되는 등 점차 약화되고 내적 성장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고구려 남정(400)의 여파로 5세기대의 부산은 고구려·신라 남정군으로부터의 정치·군사적 피해는 물론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다.

고구려 남정 이후 고대 부산의 이 같은 정황은 인접한 김해·울산·양산 등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한다. 신라 삼랑주간 박제상의 해상 활동과 거도의 우시산국·거칠산국 정복담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적어도 문헌적으로 볼 때, 5세기 중반 이후 부산의 정치체인 ‘거칠산국’은 신라의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해양권 행사도 신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삼국시대 김해, 부산, 양산 지역의 신라 편입 시기를 늦추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으로서 ‘실제적 현상’이라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6세기 전반 부산에 고총고분(연산동 고분군)이 존재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신라와는 무관한 가야의 정체성을 가진 완전히 독립된 정치체의 존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대 부산과 신라의 관계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 과정과 동·남해의 제해권의 확보 시기, 그리고 직·간접적인 지배 방식의 변화를 세밀하게 밝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대 부산의 정치체인 ‘거칠산국’의 신라에의 편입 시기를 6세기 전·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인접한 김해 가락국(=금관가야)의 병합(532) 시기에 맞춘 것일 뿐 특별할 것도 없는 안일한 해석에 불과하다.

주제어: 고대 부산, 대외교류, 동래, 독로국, 거칠산국, 구야국

I. 머리말

선사시대 이래 부산은 해양성, 개방성, 그리고 낙동강을 통해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길목으로의 ‘중개성(=중심성)’ 등의 지리적 특징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과 맞물려 그 끝자락인 동남쪽 하안·해안에 위치한 부산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현재의 부산은 수영만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기장군, 서쪽으로는 강서구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부산의 경우 기장군과 강서구(낙동강 서쪽, ‘고김해만’) 지역은 종래 울산·양산·김해 등에 속하기도 하는 등 이속의 변동이 심했다. 따라서 고대 부산을 협의로 본다면, 오히려 ‘동래’만이 치소로서의 위상과 그 정체성을 단절 없이 유지하고 있다.

‘동래’는 고대 부산의 중심지로서, 금정산 고당봉과 계명봉 골짜기에서 발원한 온천천과 양산 매곡과 기장 정관에서 발원하여 철마천과 합류한 뒤 선동 회동수원지를 거쳐 흐르는 수영강의 좌·우변에 형성되어 있다. 뒤로는 낙동강 하류 물줄기와 병행하여 서남쪽으로 경사지게 내려오는 금정산맥을 배경으로 하고, 앞으로는 수영강과 동남해 바다가 보이며, 좌우에는 윤산·황령산·장산이 우뚝 솟아 있다.

고대 부산은 이 같이 앞뒤로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일자형의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고, 소침식분지가 분포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도가 낮은 구릉성의 특징을 보이며, 수영강을 제외하면 강과 해안의 충적평야와 해안평야의 발달이 미약하여 절대 농경 면적 자체가 적다.¹⁾ 이것은 선사 이래 고대 부산인의 생업 조건과 직결된다. 즉 해운

1) 吳建煥, 『完新世後半의 洛東江三角洲 및 그 周邊海岸의 古環境』, 『韓國古代史論叢』 2, 1992, 87쪽·115쪽.

대에 집중되어 있는 말기 구석기시대 유적, 주로 하안·해안이나 섬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과 어로 활동 관련 유물, 그리고 농경이 본격화된 청동기시대 유적·유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 등은 고대 부산 지역의 이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해양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 부산의 생업 조건은 대내 활동보다는 대외 활동에서 두드러진다. 선사시대 부산 지역에는 일본열도와의 교류의 흔적은 잘 알려져 있다(흑요석, 조몽 토기, 야요이 토기 등). 이후 삼한시대가 되면 고대 정치체의 등장과 함께 북방으로부터 유이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바다를 통해 남쪽 왜로부터의 일부 민의 이주와 왜계 유물(야요이식 토기, 고배 등 흑칠 목제품) 흔적 등²⁾ 인적·물적 교류 양상이 시간적으로 단계화, 구체화, 조직화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고대 부산과 김해의 경우 ‘철’을 매개로 한 대외교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근래 고대 부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가야와 신라 때의 동남해양사 및 대외교역사 연구와 동향을 다룬 논고가 제출된 바 있어 주목된다.³⁾ 본 고에서는 문헌의 사료 해석에 국한하여 고대 부산의 특징을 대외교류의

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萊城遺蹟』, 1990, 61~63쪽. (財)東亞細亞文化研究院,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2010, 445~448쪽.

3) 김대환, 「네트워크와 위계제 사이에서의 딜레마: 가야 엘리트의 선택」,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네트워크』(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 8. 29. 김병준, 「고대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와 교역」,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네트워크』(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 8. 29. 김창석,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3~4세기 加耶聯盟體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16, 2012 ;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선석열,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石堂論叢』 66, 2016a. 전덕재,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井上主税, 「4・5世紀におけるヤマト王權と加耶の對外交流-王權の伸長に着目して-」,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네트워크』(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 8. 29. 홍보식, 「가야와 삼국의 유통 네트워크」,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네트워크』(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 8. 29.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외교류라고 하면 당연히 동북아 3국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할 때 그 대상은 중국의 진한~위진남북조와 일본의 여러 왜가 된다. 다만 고대 부산의 공간적 범주는 일단 『삼국사기』 지리지의 동래군과 두 영현인 동평현과 기장현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 부산에 편입된 강서구까지 포함한다.

고대 부산의 정치체의 실체 및 성장, 그리고 대외교류 등에 대해서는 종래 문헌과 고고 자료를 종합한 다수의 논고가 있었고,⁴⁾ 미흡하지만 필자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내놓은 바가 있다.⁵⁾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연구사로 정리되기도 했는데,⁶⁾ 독로국 관련 ‘국명’과 신라 편입 시기 등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먼저 이를 간단하게 재론하여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바다를 통한 대외교류를 특징하는 하는 고대 부산 정치체의 출현 및 삼한~삼국시대의 성격과 그 추이를 문헌 자료의 정리를 겸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지적을 바란다.⁷⁾

-
- 4) 백승욱, 「가야사 연구성과를 통하여 본 부산의 고대사」, 『港都釜山』 18, 2002. 서영교, 「新羅 倭國 사이 境界人」, 『港都釜山』 35, 2018.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2004 ;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발전」, 『港都釜山』 29, 2013 ;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해양교류와 형변」, 『港都釜山』 32, 2016b. 이종봉,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9, 2003.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1970. 허재혁,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 「居柒山國의 成長과 發展」, 『伽倻文化』 18, 2005.
 - 5) 白承忠, 「弁韓의 成立과 發展-弁辰狗邪國의 성격과 관련하여-」, 『三韓의 社會와 文化』, 韓國古代史研究10, 1995 ; 「문헌에서 본 가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 12, 1998 ;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변진독로국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18, 2002.
 - 6) 유우창,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港都釜山』 23, 2007 ;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港都釜山』 34, 2017 ; 「고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독로국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95, 2019.
 - 7)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부산의 대외교류를 다룬 논고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

II. 고대 부산의 정치체 출현

한국 고대 국가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고대 부산의 최초의 정치체의 등장도 기원전까지 소급되는 ‘삼한시대’의 변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韓’의 성립과 ‘三韓’의 정립 과정과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관련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A>

- ① (朝鮮)侯 準이 분수에 넘치게 王을 일컫다가 燕에서 망명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중략) (準은) 그의 左右宮人을 이끌고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韓地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韓王이라고 칭하였다.
- ② (한은) 漢 때에는 낙랑군에 속해 철마다 조알했다(魏略에 이르기를, 일찍이 右渠가 격파되기 전에 朝鮮相 歷溪卿이 右渠에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辰國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 곳에 간 사람이 2천 여 호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조선에 조공하는 번국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王莽의 地皇年間に 廉斯鏹가 辰韓의 右渠帥가 되어 樂浪의 토지가 비옥하여 (중략) 도망가서 항복하기로 작정하였다 (중략) (낙랑)군에서는 치의 공과 의를 표창하고 관책과 전택을 주었다. 그의 자손은 여러 대를 지나 안제 연광 4년에 이르러서는 그로 인하여 부역을 면제

다. 김대환,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영남고고학』 33, 2003. 김두철, 「부산은 언제까지 가야였는가?」,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2018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8. 이승철, 「삼한시대 독로국의 왕도지는 거제였다」, 『경남향토사논총』, 경남향토사연구협의회, 1992. 이용현, 「배산성지 출토 목간과 신라 사회」,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2018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8. 山崎雅稔, 「고대 한·일 항로와 대마도」,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2009. 홍보식,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 요소」, 『韓國古代史研究』 44, 2006.

받았다].

- ③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진한의) 老人들은 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 망명인으로 秦나라의 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이 그들의 동쪽 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 ④ 변진은 진한인과 섞여 살며 성곽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다르다. 문의 서쪽에 모두 寵神을 모신다.
- ⑤ 진왕은 목지국을 다스린다. 신자에게는 간혹 우대하여 부르는데 臣雲遣支報, 安邪踰支, 漬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하였다.⁸⁾

고조선 준왕이 바다를 건너와 ‘한왕’을 칭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초에 ‘한’은 존재했고, 그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위만조선 당시는 ‘진국’으로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기』 열전에 의하면, 한 무제는 위만조선 침공의 명분으로 “孫子 右渠 때에 이르러 (중략) 천자에게 入見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眞番 주변의 辰[衆]國이 글을 올려 천자에게 알현하고자 하여도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⁹⁾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글을 올리려고 한 남쪽의 ‘중[진]국’은 바로 ‘진국’으로 ‘한’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삼한의 분화는 마한이 선주한 상태에서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진한 세력이 동쪽에 자리 잡으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마한이 ‘한전’의 첫 머리에 언급되면서 종종 총칭인 ‘한’으로 서술되기도 하고, 마한의 중심 지역인 금강 유역에 위치했던 목지국을 진왕이 다스린 것으로도 확인된다. 목지국의 신지는 ‘진왕’으로 칭해지고 있

8)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한.

9) 『사기』 권115, 조선열전55.

기 때문에 ‘진국’의 대표자로 볼 수 있고, 분화 초기의 ‘진한’과 별개의 ‘진왕’은 동쪽 땅을 나누어 준 ‘마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⁰⁾ 다만 변진 즉 변한(이하 ‘변한’으로 통일함)의 성립과 관련된 기사는 전혀 없다. 단지 진한과는 제사 지내는 방법(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 섞여 살며, 의·식과 언어·법속 등은 대체로 진한과 유사하다고 한다. 3세기 진·변한 24국의 분포를 참고해 보면, 소백산맥을 넘은 유이민이 동·남쪽 방향의 낙동강 상류를 따라 내려왔다. 지형 조건에 따라 다소의 출입은 있지만 강의 좌·우 양안에 정착하면서 각각 진한과 변한으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이후 한군현과 서진 등 북방과의 교류 과정의 양상을 통해 그 구분과 소속 국의 대·소 규모가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¹⁾

물론 변한과 진한의 이 같은 유사성과 구별의 모호성은 ‘변진’ 명칭 자체로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진한 우거수’, ‘변[도]한포’ 등의 용례가 보이는 ‘염사치 설화’도 참고 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염사치의 ‘亡欲來降’, 漢人 戶來 등의 ‘伐材木’, 진한의 ‘出辰韓萬五千人 并[车]韓布萬五千匹’ 등을 통해 기원 후 1세기 전반 육로와 해로를 통한 변·진한과 낙랑군의 인적·물적 교류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한 우거수로 칭해지는 ‘염사치’는 ‘염사 출신의 신자’로서 여기에 우대하는 호칭을 더한 ‘구야진지염’과 직접 관련된다. 음상사로 볼 때 낙동강 하류 현재의 창원 의창 대산면 일대(‘고대산만’) ‘염산’ 출신으로 볼 수 있다.¹²⁾ 다호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지배자인 그는,

10)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8~9쪽.

11) 백승충, 위의 논문, 9~13쪽. 최근 漢簡 자료를 참고하여 마한제국의 위치를 재검토하면서 대부분의 국이 대방군과 삼한 사이의 연안해로의 교역항과 이를 포괄한 교역 네트워크 내에 위치하였음을 지적한 논고가 있는데, 변한 제국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윤용구,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2019, 19~29쪽.

당시 변한의 대표국 중 하나인 ‘변진구야국’의 지배자 ‘대신지’ 아래에 있는 ‘신지’ 가운데 한 명으로 대외교류를 전담한 자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廉斯鏹’의 ‘鏹’는 돈, 쇠덩이의 뜻으로 철 제련 및 철 소재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¹³⁾ 다량의 철기와 중국제 위세품을 부장하고 있는 다호리 1호분(기원 전 1세기 후반) 피장자는 이른 시기 변한의 철기 생산을 장악했고,¹⁴⁾ 나아가 철 생산, 집산, 유통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후술할 3세기 전반 ‘변한의 철’이 이때 이미 대외교류의 중요 품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삼한의 분화와 정립이 이렇게 적어도 기원 후 1세기 전반에 이루어졌다면, 당시 고대 부산은 어떠했을까?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국 모두 24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는데, 고대 부산도 여기에 포함되었을까? 『삼국지』에 전하는 24국명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B>

- ① 변진도 12개의 나라가 있다. 또한 여러 소별읍이 있다. 각각 거수가 있다 (중략) 변진구야국 · 변진주조마국 · 변진안야국 · 변진독로국 · 사로국 · 우유국이 있다.
- ② 변한과 진한은 합하여 24국이다. 대국은 4~5천가, 소국은 6~7백가로서 총 4~5만호이다.¹⁵⁾

변한과 진한이 각각 12국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말하면서도 24국을

12) 西本昌弘, 『樂浪郡治の所在地と辰韓廉斯鏹』, 『朝鮮學報』 130, 1989, 60~63쪽. 白承忠,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浦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3, 1989, 23쪽.

13)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44쪽.

14) 김양훈, 「삼한시대 변한권역 철기생산의 추이」, 『역사와 세계』 44, 2013, 174쪽.

15)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한.

함께 기술하는 등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국명 앞에 ‘변[진]’이 붙은 국은 변한으로, 이외의 국은 진한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마한·진한과 마찬가지로 변한도 4세기 이후 가야로 발전한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창녕으로 비정되는 ‘不斯國’의 경우 ‘변[진]’이 없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은 있다. 그러나 ‘비사벌’과의 음상사와 고고학적인 증거, 그리고 정치·문화적 독자성 유지에 유리한 입지조건 등을 참고해 보면, 비록 진한 종족이지만 변한→가야의 일 국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¹⁶⁾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이 같은 변·진한 구분법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변한 12국 가운데 고대 부산과 관련하여 종래 많은 주목을 받은 국은 ‘변진독로국’(이하 ‘독로국’이라고 함)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전근대 우리 사서에서는 고대 부산의 정치체의 국명으로 ‘居柒山國·菴山國·萊山國·蓬萊縣’ 등 다양하게 전하면서도 정작 ‘독로국’은 찾을 수 없다. 만약 독로국이 삼한시대 고대 부산의 ‘소국’이었다고 한다면, 이외의 다른 국명들은 그 이칭이거나 후대 여러 요인으로 달리 붙여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독로국과 거칠산국을 별도의 세력으로 보기도 하지만,¹⁷⁾ 받아들이기 어렵다. 『삼국사기』 등에 보이는 독로국의 이칭은 모두 ‘거칠산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거칠산국은 어원상 음훈으로도 독로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고구려 남정 이후 신라는 이 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하류 여러 정치체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한다. 그 과정에서 인위

16) 白承玉, 『比斯伐加耶의 形成과 國家的 性格』, 『韓國文化研究』 7, 1995 ;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2003, 235~240쪽.

17) 朱甫噉, 「4~5세기 부산지역의 정치적 향방」,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제1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1997 ;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474쪽.

적인 세력 교체와 중심지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세기 중·후반 무렵, ‘거칠산국’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5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이전은 ‘독로국 단계’, 이후는 ‘거칠산국 단계’로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료C>

- ① 절의 고기에 이런 기사가 있다. 신라 진골 제21대왕 신문왕 때인 영순 2년 계미에 재상 충원공이 菴山國[곧 東萊縣이다. 또 萊山國이라고도 한다]의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굴정역 동지야에 이르러 쉬었다.¹⁸⁾
- ② 동래현은 옛날의 菴山國 또는 萊山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居柒山郡을 두었으며 경덕왕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¹⁹⁾

그런데 위의 기록들만 보면, 거칠산군이 마치 장산국·내산국에서 유래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명의 유래가 오래된 것임은 짐작된다. 그러나 한자식 아화가 아닌 보다 원시적인 국명인 ‘거칠산국’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들 다른 국명은 어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신문왕대의 ‘거칠산군’은 ‘거칠산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 가장 이른 시기 자료인 『삼국사기』 거도 열전에 ‘우시산국’과 함께 ‘거칠산국’이 보인다. 장산국·내산국은 ‘거칠산국’의 뜻을 취하여 후대 붙여진 이칭인데,²⁰⁾ 그 이면에는 현재의 ‘菴山(=上山)’(634M)에 얹힌 고선옥 설화인 ‘장산국의 건국신화’²¹⁾ 및 민간 신앙

18) 『삼국유사』 권3, 탐상4 영취사.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20)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32쪽.

21) 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下)』, 2001, 423~424쪽.

인 좌동 천제당, 상산마고당 당산제²²⁾의 유래와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독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제설’과 ‘동래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즉 거제설은 다산 정약용이 제기한 이래 오랫동안 아무런 비판 없이 정설로 자리 잡았으나, 정중환이 구체적인 비판과 분석을 통해 동래설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근래 다시 ‘신거제설’을 주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으나, 새로운 근거의 제시는 거의 없다.²³⁾ 필자는 전고를 통해 동래설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중시한 바 있다.

즉 독로국 비정의 전제 조건으로 ①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왜와 가까운 곳, ②어원적으로 ‘독로국’과 상통할 것, ③삼한시대의 ‘국’이 존재할 만한 유적·유물이 있을 것, ④김해 구야국과 정치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질 것, ⑤철 생산과 유통에 적합한 곳, ⑥교통상의 요충지로서 바다를 통해 왜 뿐만 아니라 동해안쪽으로 진한·예와도 잘 통하는 곳 등이 그것이다.²⁴⁾

사실 최근까지 이루어진 독로국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고에서도 자료상으로나 해석상으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전히 동래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²⁵⁾ 따라서 현재도 필자는 종래 제시한 이 같은 조건과 동래설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즉 삼한시대 고대 부산은 ‘동래’를 치소로 한 유력 정치체가 있었는데, 『삼국지』의 변한 12국 가운데 1국인 ‘변진독로국’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당제』, 2005, 232~237쪽.

23) 종래 독로국의 위치로 비정하고 있는 ‘거제설’과 ‘동래설’ 각각의 주된 근거, 이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논평은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유우창, 앞의 논문, 2007, 96~117쪽; 앞의 논문, 2019, 177~184쪽.

24)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18~24쪽.

25) 유우창, 앞의 논문, 2019, 182~184쪽.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대 부산에는 삼한·삼국시대를 단절 없이 이어주는 유력한 정치체가 있었고, 신라 병합 때까지 복합적 성격을 띤 일종의 ‘점이지대’로서 독자적인 문화와 세력을 유지한 정치체가 존재했으며, 6세기 전반까지 조영된 고총고분인 ‘연산동고분군’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라국·안라국 등 다른 가야 중심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른 시기부터 멸망 때까지 창원, 김해, 부산 등을 아우르는 광역의 낙동강 하류 고대 지역단위 정치체로서의 연속성과 독자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한편 변·진한 24국명의 나열 순서를 보면, 독로국은 공교롭게도 변한의 대국인 변진구야국(·주조마국)·안야국과 진한의 대국인 사로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국명의 나열 순서에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독로국은 남해와 동해를 연결 하는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3세기 이전의 그 정치체의 규모는 6, 7백가의 ‘소국’ 단위로서, 인접한 대국인 구야국·안야국 및 주조마국과 더불어 정치·문화적으로는 물론 특히 대외교류상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삼한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삼국지』에 의하면 변·진한 합하여 24국이고, 그 가운데 ‘其十二國屬辰王’이라고 한다. 삼한 초기 마한이 진한에게 동쪽 땅을 분할해 주었고 또한 마한인으로 ‘진왕’을 삼았다는 점을 참고해 볼 때, ‘其十二國’은 ‘진한 12국’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²⁶⁾ 그렇다면 뒤이어지는 변한조

에 ‘十二國亦有王’ 구절을 통해서 ‘변한 12국’에도 ‘진왕=진한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변한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2국 각각의 최고 지배자를 ‘신지’라고 한다면, 이때의 왕은 느슨하나마 이들 신지를 통할하는 ‘대신지=왕’으로 상징할 수 있다.

변한 12국에 속한 고대 부산 독로국에도 최고 지배자인 ‘신지’가 있었을 것이다. 인접한 김해 구야국과 함안 안야국은 ‘대신지’가 통치하고 있었는데,²⁷⁾ 독로국의 ‘신지’는 비록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외교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인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중개성’을 통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독로국은 구야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철(소제)’의 생산과 집산, 그리고 유통을 독점하여 대중, 대외 중계교역을 주도했을 것이다. 『삼국지』 한전과 왜인전에는 독로국·구야(한)국과 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료D>

- ① 변진은 진한 사람과 섞여 살며 성곽도 있다 (중략) 그 중에 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²⁸⁾
- ② 왜인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속에 있다 (중략) (대방)군에서 왜국까지 가는데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여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동쪽으로 굽어서 한국을 지나면 그 북쪽해안의 구야한국에 이르는데 여기까지가 7천 여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한 바다를 건너면 대마국에 이르는데 1천 여리가 된다.²⁹⁾
- ③ 낙랑국은 예전의 조선국이고 (중략) 대체로 낙랑 바다 속에는 왜

26) 윤용구,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107쪽.

27) 남재우, 『安羅國史』, 해안, 2003, 77~88쪽.

28)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한.

29)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왜인.

인들이 살고 있고 1백 여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은 해마다
와서 물건을 바치고 뵈는다고 한다.³⁰⁾

‘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한다’는 기사는 자구 그대로 보면 마치 왜
가 독로국과 인접한 한반도 내 변한의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이 된다. 종
래 이를 근거로 ‘왜’의 범주를 넓혀 실제 그렇게 주장한 일부 견해도 있
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만, ‘독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
고)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왜인
이 대방 동남쪽의 큰 바다 속에 산다든지, 독로국과 인접한 ‘구야한국’
에서 바다를 건너야 대마국에 이른다든지, 낙랑(郡)의 ‘海中’에 왜인이
살고 백 여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사실 『삼국지』 한전에는 위의 첫 번째 기사 이외에도 왜의 위치를 모
호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어 동은 바다를 경계로
삼고 남은 왜와 접하여 사방이 4천여리가 된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54국이 있고 그 북쪽은 낙랑과 접하고 남쪽은 왜와 접하고 (중략) 변진
은 (중략) 남쪽은 역시 왜와 접한다” 등의 기사가 있다. 그러나 그 위치
는 위와 같이 보아도 무방하다. 어쨌든 이들 기사를 통해 마한과 함께
변한과 왜는 바다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와 관련하여 변한 가운데서도 독로
국을 특별하게 지목한 점이다. 대방군에서 왜로 가는 노정에 중간 기착
지로 독로국과 인접한 구야한국을 거론한 것과도 직접 관련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독로국이 위치한 고대 부산의 입지 조건 자체가 한반도 끝단
동남쪽 연안인 까닭에 남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으로서 유리하

30) 『한서』 권28하, 지리지8하.

고, 아래쪽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향하면 대마도·일기도·북부 구주와 연결하는 최단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독로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접한 왜가 대방군과의 교류에 있어 중요했던 사정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환령지간의 한·예의 강성’과 공손강에 의한 ‘대방군 설치와 그 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사료E>

- ① 환제·영제 말기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들어갔다.
- ② 건안 연간에 공손강이 둔유현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으로 삼고 (중략) 韓과 濊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이 후 倭와 韓은 마침내 대방에 복속되었다.³¹⁾

환제·영제(147~188) 말기 즉 2세기 후반 한·예는 군현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성해졌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건안 연간(196~220)에 요동태수 공손강이 낙랑군 둔유현 이남의 땅을 대방군으로 삼고 한·예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돌아오고 마침내 왜·한이 대방에 복속되었다고 한다. 소위 ‘진한 8국의 분할’ 문제에서 비롯된 한의 대방군 기리영 공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방군 설치와 그 관할 문제는 한의 정치적 성장과 함께 삼한의 교역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특이한 점은 대방군 설치와 ‘한·예 정벌’ 결과가 ‘왜·한 복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갑자기 왜의 복속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대방군이 한·예 특히 한을 제어함으로써 해로를 통한 왜와의 통교가 가능했다는 한의 중계교역지로서의 입지적 중요성을 말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왜·한 복속’ 때의 한은 대방군과

31)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한.

왜의 노정에 있는 변한의 독로국과 구야국으로 좁혀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진대 삼한이 군현을 배제한 채 진 본국과 직접 통교할 때 변한과 왜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고 된다.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 연안에 위치한 독로국과 구야국은 중계교역을 통해 변한 즉 초기 가야의 중심국의 위상을 가졌는데, 한군현과의 교류는 물론 일본열도의 여러 왜와의 교류도 깊었음은 물론이다. 『일본서기』에는 “임나국 소나갈질지를 보내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에서 2 천 여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³²⁾, “임나인 소나갈질지가 청하기를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³³⁾는 기사가 있다. 이때의 ‘임나’ 역시 위의 두 국을 포괄하는 남부가야의 정치체인 것으로 추정해 본다.

물론 앞의 사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한도 왜와 접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변한과 인접한 전남 해안 일부지역도 이 두 국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형세만 그러할 뿐 대방군과 왜의 중간기착지로 ‘구야한국’을 유일하게 거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한(독로국과 구야국)이 왜와 훨씬 가까웠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삼국지』 한전과 왜인전의 ‘文身’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료F>

- ① (마한) 그곳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한다.
- ② (변진은) 남자와 여자는 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역시 문신을 한다.³⁴⁾
- ③ (왜의) 남자는 어른과 아이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한다 (중략)

32) 『일본서기』 권5, 승신기 65년 추7월.

33) 『일본서기』 권6, 수인기 2년 시세.

34)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한.

夏나라 少康의 아들이 倉稽에 봉해지자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여 蛟龍의 해를 피하였다. 지금 왜의 水人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를 잡는데, 문신은 원래 큰 물고기와 바다짐승을 피하려는 것이었으나 후에 점차 장식이 되었다(하략).³⁵⁾

문신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의미로 행해지는데, 삼한 시기에는 대체로 해양적 입지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성행한 풍습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기사에서는 마한과 변한은 문신을 하는데 왜와 가깝기 때문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 내용으로 보면 왜와 가까운 변한이 마한보다 그 풍습이 깊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독로국의 경우 생활 조건과 입지 자체가 농경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안과 하안을 바탕으로 한 해양 활동의 비중이 훨씬 컸고 풍습도 그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삼국지』 왜인전에는 비록 장식화 되었지만 문신의 종류(신분에 따른 차이 등)와 그것을 행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라 소강의 아들이 삭발과 문신을 하여 ‘교룡(이무기와 용)의 해’를 피했다는 예를 들면서 왜는 ‘바다 속 큰 물고기와 바다짐승’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왜와 가까운 변한의 독로국도 문신의 습속을 가졌음은 분명한데, 이는 공통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양자 간에 수시로 이루어진 인적·물적 교류의 산물일 것이다.

당시 변한과 왜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고 된다. 『삼국지』 왜인전에 의하면 왜는 농사가 잘 안되었고, ‘南北市糴’이라고 하여 남북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쌀을 사는 등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면서 생활했다고 한다.³⁶⁾ 마한 ‘州胡(=제주도)’이 ‘한과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팔았다’고 하는 상황과 비슷한 설명인데, 모두 바다를 배경으로

35)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왜인.

36)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왜인.

살아가는 해양적 성격의 생활환경과 대외교류를 전한 것이다.

특히 삼한 시기 고대 부산의 대외교류를 논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삼국지』에 서술된 소위 변한의 철 관련 기사와 『일본서기』 신 공기의 고대 부산의 철 관련 지명이다.

<사료G>

- ① (변진의) 나라에서는 철이 나는데 한·예·왜인이 모두 와서 얻어 간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모두 철을 사용하는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한 이를 (낙랑과 대방) 두 군에 공급한다.³⁷⁾
- ② 신라왕이 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중략)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 사자 3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워 죽였다. 그리고 신라로 나아갔다. 踏鞴津에 주둔하여 草羅城을 함락하고 돌아왔다.³⁸⁾

최초의 금속기인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무기 제작 등에 유효하여 정복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위신제 제작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동 자체가 가진 강도가 약한 재질상의 한계와 매장량이 적은 원료 공급지의 제한 등으로 농기구 등 생산도구의 대량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대체한 것이 철이다. 철 생산은 주로 철광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강이 있는 지역은 사철을 채취하여 제련하기도 했다.

변한 가운데 특히 낙동강과 동남해안을 끼고 있는 구야국, 안야국, 독로국 등은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제철 원료의 확보는 물론 수집과 유통에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독로국이 위치한 고대 부산의 경우에도 당대 동래패총 등에서 단야로 등 제철

37)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한.

38)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기 5년 3월.

관련 유적과 철정·단야구 유물이 확인된 바 있고,³⁹⁾ 조선시대 이래 근래까지도 자철광, 황철광 등 광산 개발을 통해 철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특히 위의 사료에서는 변한을 중심으로 철(소재)의 대내적인 수집과 대외적인 유통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로국의 경우 그 영역에는 후술할 신라 ‘이질부례지간기(=이사부)’의 남가라 4촌 공격 때 3천 병사가 주둔한 ‘多多羅原’의 ‘다다라(タタラ)’ 즉 현재의 다대포를 포함한다. 그런데 위의 사료에 보이는 ‘踏鞴津’의 ‘踏鞴’의 일본어 음가도 ‘タタラ’인데, 철(광석)을 녹일 때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이다. 따라서 독로국 소속의 ‘다다라’는 철 생산과 깊은 관련을 가진 지명임을 알 수 있다.⁴⁰⁾

만약 ‘변한의 철’ 기사의 중심 지역이 낙동강 하류의 구야국과 독로국이라면, 철(소재)를 매개로 한 대외교류 활동이 동북아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초기 가야의 이 두 국은 철 생산, 철 수집, 철 교역 등의 중심지이고, 이를 매개로 삼한의 다른 소국은 물론 대중(한군현)·대왜·대북방(동예) 등 전방위적인 대외교류를 주도하는 등 동·남해 연안의 해양권을 장악했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기년 문제가 있고 설화적으로 전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보이는 금관국왕 수로와 탈해의 경쟁, 탈해와 호공의 다툼, 그리고 수로왕의 신라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의 쟁강 간여 기사 등이 주목된다.

<사료H>

- ① 琬夏國 舍達王의 부인이 홀연히 아이를 배어 달이 차서 알을 낳았

39)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Ⅱ』, 1998, 98쪽, 117~118쪽.

40) 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 1983, 28쪽.

는데 사람으로 화하였으므로 이름을 탈해라고 하였는데 (이때) 바다로부터 (가락국에) 오니 키가 3척이요 머리둘레가 1척이었다. 혼연히 대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의 위를 뺏으려고 왔다”고 하였다. 왕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나를 명하여 즉위케 하여 장차 中國을 편안히 하고 下民을 안도케 함이니 감히 천명을 어गी어 위를 주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고 하였다. 탈해가 “그러면 술법으로 다투어 보겠느냐”라고 말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삼시간에 탈해가 변하여 매가 되니 왕은 변하여 독수리가 되었고 탈해가 또 변하여 참새가 되니 왕은 새매로 변하였는데 그 사이에 촌음의 간격도 없었다. 조금 있다가 탈해가 本身으로 변하자 왕은 또한 원래 모양을 회복하였다. 탈해가 이에 항복해 가로되 “내가 술법을 다투는데 있어 독수리에 대한 매, 새매에 대한 참새가 되었으나 (죽음을) 면한 것은 대개 聖인이 죽이기를 싫어한다는 인덕의 소치라 내가 왕과 더불어 위를 다투어 실로 어렵다”고 하고 곧 절하고 하직하여 나가서 부근 교외의 나무에 이르러 중국배가 와서 정박하는 水路를 취하여 가려고 했다. 왕은 그가 체류하여 난을 꾸밀까 염려하여 급히 舟師 5백 척을 발하여 쫓으니 탈해가 鷄林의 국경으로 달아나므로 舟師가 모두 돌아왔다고 한다. 여기에 실린 기사는 신라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⁴¹⁾

- ② 脫解齒叱今은 南解王 때[옛 책에 壬寅年에 즉위했다고 함은 잘못이다. 가까운 壬寅年이라면 髙禮王이 즉위하던 것 보다 약간 뒤가 되니 王位를 다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앞이라면 赫居世의 때가 되니 壬寅이 아닌 것을 알겠다] 駕洛國 바다에 배가 와서 닿았다. 首露王이 백성들과 북을 치며 맞아 멧게 하려 하자 배가 날듯이 달아나서 鷄林의 동쪽 下西知村 阿珍浦까지 갔다 (중략) 성 안에 살만한 곳을 살펴보니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된 봉우리가 하나 보이는데 지세가 오래 머물만한 땅이었다. 이내 내려와 그 곳을 찾으니

41)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바로 瓠公의 집이었다. 이에 지락을 써서 몰래 숫돌과 숫을 그 집 곁에 묻어놓고 (다음날) 새벽 아침에 문 앞에 가서 “이 집은 조상 때부터 우리 집입니다”라고 말했다. 호공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서로 다투었으나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다. 이에 관가에 고하자 관가에서 문기를 “그 집이 너의 집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고 하자 (동자가)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였는데 얼마 전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청컨대 땅을 파서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따르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취하여 살게 하였다.⁴²⁾

- ③ 탈해이사금이 즉위하였다. 토해라고도 한다. 당시 나이가 62세였다. 성은 석이고 비는 아효부인이었다.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천 리 되는 곳에 있었다.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국왕의 딸을 맞이해 처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은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함에 넣고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맡겼다. 처음에 금관국의 해변에 이르렀는데 금관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의 아진포구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시조 혁거세가 즉위한 지 39년 되는 해였다.⁴³⁾

- ④ 濇伐國과 悉直谷國이 국경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왕에게 와서 판결을 청하였다. 왕이 처리하기 난처하여 생각하기를 金官國 首露王이 年老하여 아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고 불러서 물었더니 수로가 의견을 내어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붙이게 하였다. 이 때 왕이 6부에 명하여 함께 수로왕을 대접하게 하였다. 5部는 모두 伊飡으로써 主人을 삼았는데 오직 漢祗部만은 직위가 낮은 자로써 主人이 되게 하였다. 수로가 성을 내어 그의 奴 跽下里를 시켜

42) 『삼국유사』 권1, 기이1 제4탈해왕.

4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1년.

漢祗部の主保齊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奴가 도망하여 汗
伐主 陀鄒干的 집에 의탁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 그 奴를 찾았으나
陀鄒가 돌려보내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로써 음즙벌국을 치
니 그 主가 무리를 데리고 자진 항복하였다.⁴⁴⁾

가락국 시조 수로왕 관련기사는 주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오
가야’조에 전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언급하고 있다. 비록 ‘소
국’ 관념에 입각한 신라 중심의 서술이지만, 초기 가야와 신라의 관계
특히 철 및 동해와 남해를 관통하는 해양 주도권(=대외교역권) 쟁패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실제 신라 석씨집단은 ‘탈해’의 도래설화
담(바다를 통한 도래, 수로왕·호공과의 경쟁, 야장 집단 등)과 ‘우로’의
설화담(포상8국 격파, 우유촌(=울진?)에서의 죽음을 통한 왜의 격파 등)
을 통해 볼 때 철을 소유하고 유통을 통제한 유력한 해양세력이었음은
분명하다.

수로왕과 탈해의 성격과 관계를 보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철기소유
집단’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수로가 우위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수로왕은 선주 철기 소유 집단으로 가락국(=금관국)에서
이미 중심 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상태였는데, 뒤이어 건너 온 탈해
가 수로왕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중국 배가 와서 정박하는 수로’를 통해
동쪽 계림국으로 갔다고 한다. 탈해도 선진 문물이었던 철기를 소유한
야장 집단이었으나, 수로왕에는 미치지 못하자 신라로 간 것이다. 당시
금관국에 ‘중국배가 정박하는 바닷길’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점도 주
목된다.

삼한 시기 철기 문화는 신라보다 가야가 우세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은 신라에 간 탈해가 선주한 ‘호공’ 집단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4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23년 추8월.

것으로 방증할 수 있다. 적어도 신라에서는 탈해가 호공보다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아진포에 도착한 탈해와 한기부주를 유이민과 토착인의 관계로 추측하거나,⁴⁵⁾ 탈해의 세력 근거지를 한지읍락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금 때 우시산국(울산)을 병합했다는 견해⁴⁶⁾도 있다. 참고로 호공은 원래 왜인이라는 기사⁴⁷⁾도 있기 때문에 완하국 혹은 왜국에서 1천 여리 떨어진 다파나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철 소유 집단인 탈해 출신지와 상관성 및 그 집단의 성격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철 소유와 유통을 중심으로 한 동해와 남해에서의 금관국 수로왕의 이 같은 높은 위상과 특징적인 성격은, 신라 파사이사금이 음즙벌국과 실질곡국의 국경 다툼의 해결을 위해 중재를 요청한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음즙벌국은 현재의 경주 안강(혹은 영덕 영해)으로 退化郡 湍汁火縣이 되고, 실질곡국은 현재의 삼척(혹은 울진)으로 이후 지증왕 6년(505) 실직주가 되고 이사부가 군주로 임명된 지역이다.

종래의 이 같은 지명 비정이 타당하다면, 두 국의 위치는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등 바다와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러나 두 국은 엄연하게 신라권역이고 또한 거리상으로도 ‘금관국’에서 결코 가깝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년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영토 분쟁과 중재’라는 신라본기의 서술은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 보다 주목되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라 파사이사금이 자국 소속 ‘소국’ 간의 국경 문제로 금관국 수로왕을 초빙하여 직접 해결을 주문했다는 것은, 비록 기년 문제는 있

45)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75~79쪽.

46) 申석열, 『新羅國家성립과정에 있어서 小國爭鬭』, 『역사와 경계』 49, 2003, 9쪽.

4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거서간 38년 춘2월.

지만 초기 가야의 국력은 여러 면 특히 철과 동남 해양권(해상 군사력, 대외교류)의 행사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점이다.⁴⁸⁾

둘째, 음즙벌국과 실질곡국은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동해안으로 연결하는 해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해양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비록 입장이 역전된 상황이지만 후술할 탈해이사금대 거도의 우시산국·거칠산국 병합과 지증왕대 실직군주 이사부의 가야의 병합 등의 사실과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다.

셋째, 수로왕의 개입은 결국 그를 소홀하게 대접한 ‘漢祗部主 保齊’를 죽이고, 수로왕이 유리하게 판결한 음즙벌국은 신라에 항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한기부주 보제가 이전에 수로와 다툼바 있는 철 소유의 탈해 집단과 밀착된 신라의 해상세력이고, 음즙벌국은 금관국에 동조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동남해 최대의 해상세력으로서 수로왕의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기 가야의 해양적 성격과 가락국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설화도 주목된다. 즉 수로왕은 즉위한 이후 배필이 없었는데 어느 날 먼 바다를 항해한 끝에 가락국에 도착한 허황옥을 배필로 맞이하는 일련의 서사적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혼인담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유이민 세력의 정착 혹은 정치세력간의 결합을 말하는 것을 넘어 당시 동남 해양권을 장악하고 있던 수로왕의 특징적인 면모와 가락국의 개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漢肆雜物’이 보여주는바 중국과의 교섭이 활발했음을 나타낸다.

초기 가야의 중심국인 금관국 수로왕이 이 같이 동·남해의 해양권을 장악하면서 대외교역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앞서 언급한 ‘변한의 철’ 관련 기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한편 인접한 독로국의 역할도 컸

48) 白承忠, 앞의 논문, 1989, 12~13쪽.

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울산 지역만 하더라도 달천 광산이 유명하고, 철기 소유 집단인 탈해가 신라에 정착하면서 주요 근거지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철 소재가 낙동강 하류의 구야국·독로국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단일의 통로로 수집되어 한·예·왜 등이 가져갔다는 것은, 적어도 대외교역과 해양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들 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나타낸다.

즉 삼한 시대 고성, 창원, 김해, 동래, 양산, 울산 등 동남해안에는 다수의 제련 관련 유적, 철 제품, 그리고 철광산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중국 군현계 위신재와 왜계 토기·위신재가 출토되었으며, 북방계 유적과 유물 등이 보인다. 특히 ‘예’에서까지 변한에서 철 소재를 가져갔다는 것은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초기 가야의 인적·물적 교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고, 철 생산과 수집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바다를 통해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독로국의 역할이 컸음을 방증한다.

초기 가야와 신라의 경쟁 관계는 이 같이 가야의 우위 속에 동·남해 상에서 다투는 한편 내륙에서는 낙동강 하류 양산 물금 방면의 ‘황산진’과 ‘황산하’가 주목된다.⁴⁹⁾ ‘황산진’은 낙동강 중·하류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인데,⁵⁰⁾ ‘신라에서 보면 경주-언양-양산 침공 루트로서 낙동강 하류의 수로와 바다로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교통로였다. 초기 가야와 신라의 전쟁 기사 대부분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신라가 일찍이 양산에 진출했음을 참고해 보면 낙동강 하류 초기 가야의 중심 지역으로 양산과도 인접한 부산과 김해도 그 영향을 받았

49)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21년 추8월, 지마이사금 4년 춘2월.

50)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55쪽.

을 것임은 자명하다.

황산하 즉 낙동강 수로는, 구야국과 독로국을 중심으로 한 가야의 철 소재의 수집과 집산에 있어서 바로 길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양 패권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황산하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초기 전쟁에서도 동남해 패권과 마찬가지로 가야가 우세했는데, 구야국은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여 철 소재의 집산을 주도하고 독로국은 바다를 통해 철 소재를 수출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기도 한다.

삼한시대 초기 가야 당시 낙동강 하류와 통하며 대외교역을 중심으로 동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한 독로국의 입지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비록 통일 신라 이후의 기사이지만 『삼국사기』 제사조의 거칠산군에 소재한 ‘중사’ 가운데 ‘4해’의 제사처로서 ‘형변’이 참고가 된다. 또한 ‘중사’ 가운데는 ‘4독’ 즉 네 하천의 제사처로서 남쪽에는 지금의 양산인 삼랑주의 ‘황산하’에 두었다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산하’는 가야와 신라가 쟁패를 벌인 군사 요충지이자 바다로 통하는 대외교통의 길목이었다. 관련 기사를 ‘4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 ① 中祀 (중략) 4海는 동쪽의 阿等邊斤烏兄邊이라고도 함. 退火郡, 남쪽의 兄邊居柒山郡, 서쪽의 未陵邊屎山郡, 북쪽의 非禮產悉直郡이다.
- ② 中祀 (중략) 4瀆은 동쪽의 吐只河繫浦라고도 함. 退火郡, 남쪽의 黃山河敵良州, 서쪽의 熊川河熊川州, 북쪽의 漢山河漢山州이다.⁵¹⁾

51)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신라는 통일 이후 3산·5악 이하 명산대천에 ‘대·중·소사’ 제사제도를 시행했다. 그 가운데 ‘중사’는 ‘4해’인 동서남북의 ‘邊’ 즉 끝단에 위치한 바닷가의 국방과 해상 교통(안전)상의 중요 거점 지역에 ‘해양신’을 모시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장으로 편제한 것이었다.⁵²⁾ 이 가운데 남쪽은 거칠산군의 ‘형변’에 두었다고 하는데, ‘해양신’에 대한 제사처로서 고대 부산지역이 중시되었음을 잘 나타낸다.

‘4해’는 모두 바닷가 혹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형변부곡은 (동래)현의 남쪽 해안에 있다. 신라 때는 이곳에서 ‘남해신’을 제사지냈으며 (삼국사기의) 중사에 실려 있다”⁵³⁾고 하는 등 다른 부곡이나 향과는 달리 그 연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기록을 참고해 보면, ‘형변’은 동래군 혹은 동래현의 치소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인 해안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통일 신라 이후 고려 때까지 ‘남쪽의 해신’을 제사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변’의 정확한 위치는 잘 알 수 없다. 동래현 남쪽이라고만 하여 거리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동래현에서 남쪽 해안까지 15리라고 서술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동래현의 제사처로서 속현 동평현 남쪽 1리에 있는 ‘毛等邊神祀’가 주목된다.⁵⁴⁾ 이 신사는 산천의 신을 모시는 다른 신사와는 달리 섬의 신을 모시는 등 섬·바다와 관련이 깊은데, 그러나 ‘형변’과의 관계 역시 불명확하다. ‘형변’의 위치에 대해서는 종래 남구·용당동에 비정했는데,⁵⁵⁾ 근래에는 수영만 부근 혹은 ‘동래 고읍성 터’에서 가까운 ‘민락동 白山(129.5M)’으로 달리 비정하기도 한다.⁵⁶⁾

52)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184~192쪽.

5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고적.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사묘.

55)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 제1권, 1989, 529쪽.

56) 선석열, 앞의 논문, 2016b, 119~120쪽.

전자는 주산인 봉오리산(신통산, 173.3M)을 경계로 용호동과 접하고 있는데, 좌우로 이기대와 신선대가 있고 바로 아래 남쪽으로는 오륙도가 내려 보인다. 오륙도는 남해와 동해의 분기점이고 아래쪽으로는 대마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향하는 등 연안 항해와 추측 항해로 이루어지는 地文 航海 때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해양신’의 제사처로서 적합하다. 후자는 인접하여 좌수영이 있었던 군사요충지이고, 통일 신라 때 창건된 옥련선원이 소재하는 등 해양신앙이 불교신앙으로 변용한 흔적이 보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일 신라 때 동래군의 중심지가 이전의 윤산 아래에서 옮겨 온 배산 부근의 ‘고읍성’ 지역이라고 한다면,⁵⁷⁾ 백산은 남쪽 바닷가의 해양신을 모신 제사처로는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수영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고대 부산의 해양 교류와 관련된 제사처로서의 ‘형변’의 위치는 돌출된 해안에 있으면서 동·서쪽 각각의 바닷길로 잘 통하고, 남쪽의 먼 바다를 관망하기에 적합한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넓혀 보면 인접한 용호동과 오륙도까지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삼국지』 한전에 전하는 변한의 철 관계 기사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전하는 초기 가야와 신라 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삼한시대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안에 걸쳐 대외교역로 확보와 대외교역권 행사를 두고 양국이 경쟁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삼한 시기에는 확실히 초기 가야가 우세했고, 그 중심에는 당시 철 생산과 집산 그리고

57) 통일신라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래 고읍성터의 조사와 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와 보고서가 참고 된다. 경남문화재연구원, 『東萊 古邑城址』, 2007, 299쪽. 金義煥, 『東萊古邑城址攷』, 『釜山の 遺蹟과 遺物』, 安龍福將軍紀念事業會, 1969, 35~37쪽. 東義大學校博物館,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59~80쪽. 釜山博物館・釜山廣域市 蓮堤區, 『釜山城址-2016년 시굴조사 보고서-』, 2018.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24쪽.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534~535쪽.

이를 매개로 한 유통 즉 대외 중계교역을 장악했던 해상왕국인 구야국과 독로국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삼국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4세기대의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특히 한반도 내 한군현의 소멸 및 중국의 위진남북조의 정립과 그 영향은 삼국 및 가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삼국시대의 시작과 발전으로 보고 있다. 고대 일본에서도 고분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보는 당시 가야는 어떠한가 하는 점이 주목된다.

4세기 이후 가야 관련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인접한 신라의 경우를 보면 삼국시대 부산과 관련하여 초기 가야의 상대 세력이었던 탈해 집단 활동 내지는 그와 연관된 내용이 특히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신라의 성장과 함께 동·남해를 아우르는 해상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전대 강성했던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김해·부산 중심의 가야 정치체의 해상권이 약화되고 독자성도 거의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독로국=거칠산국 멸망 기사, 이사부의 남가라 4촌 초략 기사, 그리고 이사부의 가라국 병합 기사 등에 보이는 내용은 흥미를 끄는 부분이 많다.

<사료J>

- ① 居道는 그 族姓을 잃어버려 어느 곳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이 사금에게 출사하여干이 되었다. 그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 경계에 끼어 있어 자못 國患이 되었다. 거도가 邊官이 되어 마을

속으로 并呑할 생각을 가졌다. 매년 한 번씩 말들을 張吐의 별관에 모아놓고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리게 하여 즐거운 오락으로 삼았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馬叔’이라고 하였다. 두 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어 신라에서 항상 있는 일이라 괴이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에 병마를 일으켜 불의에 그들을 공격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⁵⁸⁾

- ② 異斯夫[혹은 菴宗이라고도 한다]는 성은 金氏이고 奈勿王의 4세손이다. 智度路王 때 바닷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居道의 술책을 물려받아 馬戲로써 加耶[혹은 加羅라고도 한다]를 속여 이를 쳐서 빼앗았다.⁵⁹⁾

- ③ 신라는 다시 上臣 伊叱夫禮智干岐[신라는 大臣으로 上臣을 삼았다. 一本에서 이르기, 伊叱夫禮知奈末이라고 한다]를 보내 군사 3천을 이끌고 와서 직언 듣기를 청했다(중략) 이질부례지간기는 多多羅原에 머물면서 삼가 돌아가지 않고 석 달을 기다렸다(중략) 상신이 4村을 抄掠하고 金官·背伐·安多·委陀의 4촌이다. 一本에 이르기,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가 4村이라고 한다] 인물을 모두 데리고 그 본국으로 들어갔다.⁶⁰⁾

- ④ 가야가 배반함으로 왕이 異斯夫를 시켜 이를 치게 하고 斯多唵으로 보좌역을 맡게 하였다. 사다함이 기병 5천을 거느리고 먼저 달려가 梅檀文으로 들어가서 흰 기를 세우니 온 城 안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닥치니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⁶¹⁾

- ⑤ 진흥왕이 伊濱 異斯夫에게 명령하여 加羅[加耶라고도 한다]國을 습격하였는데, 이 때 斯多唵의 나이가 15~6세로서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의 청하는 태도가 간절하고 뜻이 확고하므로 드디어 그를 임명

58)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도.

59) 『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

60)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 하4월 시월.

6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3년 9월.

하여 貴幢裨將으로 삼으니 그를 따라 나서는 화랑도들도 많았다. 사다함이 가라국 국경에 이르러 총지휘하는 장수에게 요청하여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旃檀梁으로 들어갔다. 가라국 사람들은 뜻밖에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이에 놀라 소동하여 막지 못하므로 사다함의 大軍이 이 틈을 타서 드디어 그 나라를 없애버렸다.⁶²⁾

신라의 干 거도가 ‘변관’이 된 뒤 마속의 놀음으로 안심시킨 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갑작스럽게 병합한 기사이다. 두 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각 울산(웅촌 하대?)과 부산 동래로 비정하고 있는데, 전자를 ‘장산’의 다른 이름인 ‘上山’과 결부하여 두 국 모두를 부산 동래로 보기도 한다. 비록 설화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두 국은 항상 신라의 우환이 되었는데, 마장 놀음을 통해 기회를 노려 기습적으로 고대(울산과) 부산의 정치체의 병합을 전하는 것은 분명하다.⁶³⁾

물론 이 기사는 소급된 것으로 탈해이사금 당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없다. 두 국 병합을 주도한 거도도 족성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독로국의 이칭인 ‘거칠산국’ 국명도 사실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고, 탈해이사금대의 국명으로도 간주할 수 없다. 단지 지리지에 신문왕대 ‘거칠산군’으로 삼았고, 위의 열전에 ‘거칠산국’이 보이는 점을 참고하여 신라 병합 이전의 국명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리지에서는 신라의 병합 이전에 주요 정치체가 존재했던 곳은 많은 경우 소국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고대 부산과 비교되기도 한다.

사실 『삼국유사』에는 古記를 인용하면서 같은 신문왕대 영원 2년

62) 『삼국사기』 권44, 열전4 사다함.

63) 거도의 우시산국·거칠산국 병합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유우창, 앞의 논문, 2007, 117~125쪽.

(683)에 재상 忠元公이 蓼山國 온천에서 목욕하고 돌아올 때 屈井驛 桐旨野에서 쉬었다⁶⁴⁾고 하여 ‘거칠산국’이 아니라 ‘장산국’으로 나오고 있다. ‘독로국 시대’ 이후 고대 부산의 국명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음훈의 변화로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고졸한 ‘거칠산국’에서 후대 그 뜻을 따서 ‘장산국’으로 칭한 것이다. 거도는 우시산국(울산)과 거칠산국(부산 동래)을 병합했다고 하는데, 반대쪽이지만 여기서도 장산국과 굴정역(울산 범서 굴화) 순서로 언급하는 등 그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어쨌든 위의 기사는 기년과 국명 자체에 의문점이 많지만, 신라의 ‘변관’인 거도가 거칠산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추정⁶⁵⁾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고대 부산의 정치체인 거칠산국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 확대와 병합을 축약하여 복합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5세기 중반 이후의 사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⁶⁶⁾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하필 탈해이사금대에 울산-부산 동래로 이어지는 신라의 군사 진출을 서사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한시대 철 생산과 철 소재의 유통 등 동남해안의 해상권 행사를 두고 구야국과 독로국 등 초기 가야 정치체와 다툼 인물이 바로 신라의 탈해 혹은 그와 관련된 집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 즉 초기 신라의 탈해 집단은 철 제련 관련 야장 집단으로 동해의 해상권을 행사했으나, 낙동강 하류의 초기 가야인 구야국·독로국과의 경쟁에서는 뒤처지는 형국이 었다. 그런데 신라가 4세기 중반 이후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5세기

64) 『삼국유사』 권3, 탑상4 영취사.

65) 유우창, 앞의 논문, 2017, 140~141쪽.

66)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55쪽. 거칠산국의 신라 편입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설·5세기설·6세기설 등 다양한데, 각 설의 주요 근거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 된다. 유우창, 앞의 논문, 2019, 184~191쪽.

초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하여, 5세기 중·후반~6세기 전반 낙동강 하류의 가야 정치체를 병합한다. 이 같은 사정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사에 종래 가야와 관계가 깊었던 탈해이사금대로 소급하여 ‘거도’라는 족성도 알 수 없는 인물을 등장시켜 두 국을 멸망시킨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즉 이 기사가 후대 신라의 가야 병합 사실이 소급되었다는 점은, 이사부 열전에 전하는 바와 같이 6세기 전·중반의 가야 복속 과정이 거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탈해이사금대 거도의 우시산국·거칠산국 복속담은 5세기 중반 이후 사실을 초기 기사로 소급한 것인데, 초기 가야와 신라의 관계 및 거도열전의 서사 형식을 참고하여 표현하자면 가야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탈해이사금의 낙동강 하류 가야 정치체에 대한 ‘완전한 복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이다.

‘이사부’는 가야의 중심국인 가락국과 가라국 병합을 주도한 인물인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열전 그리고 후술할 『일본서기』 계체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성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 특히 열전에 의하면 지도로왕 때 바닷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가야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김해 가락국(=금관국, 남가라) 병합(532)의 전후 사정을 전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이사부는 ‘나마’의 직책을 가진 인물로서 실직주군주 등을 역임하는 등 동·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이사부가 ‘거도의 마희 술책을 물려받아 가야를 속였다’는 것은 서술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탈해이사금대의 거도의 두 국 병합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 실제 ‘마희’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사다함 열전에 서술하고 있듯이, 이사부가 가라국 병합을 총지휘할 때 부장 사다함이 대군인 5천 기병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을 모티프로 작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신라가 동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낙동강 하류 고대 부산의 거칠산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구려 남정(400)이 있고, 다음으로는 인접한 양산 지역에 대한 신라 진출 때이다. 일부에서는 고구려 남정이 낙동강 하류까지 미쳐 가락국의 급격한 쇠퇴와 함께 가야세력권의 재편을 가져와 5세기 1/4~2/4분기를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⁶⁷⁾ 이에 따르면 신라의 고대 부산의 거칠산국 진출은 6세기 이후가 된다.

문헌 입장에서 ‘남정’의 의미와 가야사의 획기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여유는 없다. 다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경주 중심의 신라사 우위의 인식만큼이나 김해·부산 중심의 가야사 우위의 인식이 도식화 되어 자리 잡고 있고, 삼국의 발전과 비교해 볼 때 전·후기 가야사 획기가 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삼한 시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안라국의 부각⁶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정’을 계기로 신라의 낙동강 하류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라의 양산 지역 진출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참고 된다.

<사료K>

- ① 제상은 敵良州干으로 임금을 섬겼다 (중략) 곧 訥祗王이 즉위하자 말 잘하는 사람을 얻어 (왜와 고구려에) 가서 (두 아우를) 맞이해 올 것을 생각하였다. 水酒村干 伐寶靺, 一利村干 仇里迺, 利伊村干

67)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港都釜山』 34, 2017, 22~24쪽.

68) 李炯基, 『阿羅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史學研究』 57, 1999 ;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94~96쪽.

波老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을) 불러서 묻기를, “나의 동생 둘이 왜와 고구려 두 나라에 볼모가 되어, 여러 해가 되었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형제의 정이라서 그리운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세 사람이 똑같이 대답하기를, “신들은 삼량주간 제상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하의 근심을 풀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⁶⁹⁾

- ② 백관이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와 용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敵羅郡 太守로 있는 堤上이 가능할까 합니다”라고 하였다.⁷⁰⁾

- ③ 신라왕이 汗禮斯伐 · 毛麻利叱智 · 富羅母智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중략)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 사자 3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워 죽였다. 그리고 신라로 나아갔다. 踏鞬津에 주둔하여 草羅城을 함락하고 돌아왔다.⁷¹⁾

- ④ 백제왕은 구저, 미주류, 막고를 보내 조공하도록 하였다. 그때 신라국의 조사도 구저와 함께 왔다 (중략) 이에 신라의 공물은 진귀한 것이 실로 많았지만 백제의 공물은 적고 보잘 것 없었다. 그래서 구저 등에게 “백제의 공물이 신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들은 길을 잃어 沙比新羅에 이르렀는데, 신라인이 저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⁷²⁾

- ⑤ 왜인이 敵良城에 침입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이 伐智와 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도중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물리쳤다. 왕은 왜인들이 자주 영토를 침입하므로 변경에 두 성을 쌓았다.⁷³⁾

69) 『삼국사기』 권45, 열전5 박제상.

70) 『삼국유사』 권1, 기이1 나물왕김제상.

71)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기 5년 3월.

72) 『일본서기』 권9, 신공황후섭정기 47년 하4월.

7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6년 춘2월.

신라 눌지마립간대의 고대 양산 즉 ‘삼랑주’의 간 박제상(=毛末)의 왕자 구출을 위한 대고구려·대왜 활약상은 그의 해상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남정 직후 실성이사금이 특히 왜에 미사흔을 파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신라와 왜가 가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왜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의 금관국은 물론 거칠산국은 비록 독자성은 유지했지만 이때부터 동남해안의 해상세력권을 신라에 넘겨주고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제상 관련 사료에는 성씨(박씨 혹은 김씨), 관등(삼랑간주 혹은 삼랑주 태수), 지배 지역(양산 혹은 울산)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눌지마립간 2년(418), 전대 실성이사금이 고구려와 왜에 각각 인질로 보낸 왕제 복호와 미사흔을 구하기 위해 고대 양산(삼랑 혹은 삼라)의 지배자인 박제상을 발탁하여 먼저 복호를 구한데 이어 곧바로 미사흔을 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왜의 포로로 잡혀 죽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박제상은 사후 ‘대아찬’으로 추증되는데, 당대 관등으로 전하는 ‘태수’는 후대 부회된 것이고 실제로는 ‘간’이었을 것이다. ‘간’의 위상은 京位 舍知(13위) 혹은 왕의 임무를 수행한 독자 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방 지배자의 범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신라본기에서는 ‘복호가 나마 제상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상은 경위 ‘나마(11위)’의 관등을 가진 고대 양산의 ‘변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제상의 고구려와 왜를 대상으로 한 활약상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되는 것은 ‘고대 양산’의 지역적 특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나마’ 관등의 역할(성격)의 특징과 5세기 전반 신라의 ‘해양권’ 행사이다. 이와 유사한 인물로는 6세기 전반에 활약한 이사부이다. 그는 ‘상신’으로서 ‘간기’로 칭해지기도 하는데, 실직주와 하슬라주의 ‘군주’ 직책을

가지면서 관등은 역시 ‘나마’였으며, ‘우산국’을 점령한데 이어 가야 병합 때는 바닷가의 ‘변관’으로 나오는 등 동·남해안을 관장했다.

어쨌든 제상은 고구려와 왜에 억류되어 있는 두 아우를 구출하라는 눌지마립간의 명을 받고 고구려에서 보해(북해)를 구하기 위해 ‘北海之路’를 이용하여 성사시켰음을 말하고 있고, 곧이어 왜에서 미해(미사흔)를 구할 때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울포’에서 배를 타고 왜로 향했다고 한다. ‘울포’의 위치는 울산(염포)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거제도에도 같은 지명이 있지만 거리나 정황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만약 제상이 경주에서 가까운 울포가 아니라 자신의 원래 지배지역에서 출발했다면, 그 경로는 어땠을까? 아마 낙동강 하구 양산 물금 인근의 ‘황산진’에서 출발하여 바다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 부산의 동래를 거쳐 남쪽의 대마도·일기도·북부 구주로 갔을 것이다. 이 점은 제상의 지혜로 미해(미사흔)의 탈출 사실을 안 왜의 습진언이 신라 사신 3명을 죽이고 신라로 나아가기 위해 ‘도비진’에 이르러 ‘초라성’을 정벌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초라성’의 ‘초라(サワラ)’는 지금의 양산으로 비정되는데, 습진언이 미해 탈출의 주범이 제상임을 알고 그 근거지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초라성’ 정벌 앞서 ‘도비진’에 이르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비’는 ‘タタラ’로서 고대 부산 거칠산국에 포함된 지역으로 지금의 ‘다대포’로 비정된다. 왜의 습진언은 거칠산국 앞 바다를 돌아 낙동강 하류 다대포에 일시 머물다가 위로 올라가 물금 방면의 양산을 공격한 것이다.

낙동강 하류가 왜의 주요 신라 침입로였다는 점은 기소궁숙네가 신라를 침공할 때 신라가 ‘匪羅(サフラ)’ 밖에 몸을 감추고서 고구려 조공을 막고 백제의 성을 병탄하고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먼저 ‘喙’을 평정했다는 기사⁷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잡라’와 ‘탁’은 신라의 남쪽 방면의 낙동강 하류에 인접해 있는 배후 지역으로 왜의 침입로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삼라·삼량(=양산)과 탁기탄(영산~밀양)으로 비정되는 등 낙동강 동안에 위치한 가야와 신라의 경계지역이다.

어쨌든 왜 습진언의 신라 공격 기사는 믿을 수 없지만, 제상의 미해구출 사건을 모티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사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상의 활동 근거지가 고대 양산 지역임을 감안해 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 습진언의 침입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마 신라본기의 ‘황산진(居)’ 혹은 ‘황산하’를 중심으로 하여 양산천 부근 위아래에 위치한 원동 용당나루(=가야진, 가야진사)와 물금나루를 포괄하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는 왜의 신라 침입로로서 낙동강 하류 방면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고대 부산 동래-양산이 대외교섭상의 중요한 관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왜 기소궁숙네의 ‘잡라’ 관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 없지만, 비슷한 시기인 자비마립간 6년(463)에도 왜인이 삼랑성을 침입하니 두 성을 쌓았다고 한다.⁷⁵⁾ 이것은 역으로 두 지역이 신라의 군사·교통상의 요충지로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진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빨랐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부의 남가라 4촌 초략 루트가 참고 된다.

앞서 사료에도 제시하였지만, 이사부 즉 상신 이질부례지간기(=대신 이질부례지나말)는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웅천 부근의 다다라원에 머물다가 남가라의 4촌 금관·배벌·안다·위타(=다다라·수나라·화다·비지)를 빼앗고 돌아갔다고 한다.⁷⁶⁾ 6세기 전반 그의 활동이悉

74) 『일본서기』 권14, 웅략기 9년 3월.

75) 왜인의 삼랑성 침입에 대비하여 신라가 쌓은 두 성을 소지마립간 15년(493)에 왜적에 대비하여 설치한 임해진과 장령진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위치를 기장 서부리산성과 황산진~양산지구대에 비정한 견해도 있다. 선석열, 앞의 논문, 2013, 120~124쪽.

直州·何瑟羅州軍主로서 우산국 정벌 등 동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4촌 초락은 동남해의 낙동강 하류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신라는 524년 ‘남경척지’를 통해 내륙 쪽의 탁기탄(창령-영산)을 안정시키고, 해로를 통해 남가라 4촌을 초락함으로써 탁순(창원)을 협공한 것이다.

지금까지 5~6세기 전반 고대 부산 거칠산국의 대외교역적 성격을 인접한 김해와 양산에의 신라의 침입과 왜의 신라 침입 루트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른 시기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은 육로2 해로1 총 3갈래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①경주-언양-양산-김해-부산(양산천-낙동강), ②경주-언양-울산(웅촌·하대)-부산(정관-노포-북천)(회야강과 수영강 결절지), ③경주-울산-부산(기장-수영-다대)-김해 등이 그것이다. 고대 부산은 김해는 물론 인접한 양산·울산과도 바다는 물론 수계나 역로 등 육로로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V. 맺음말

삼한·삼국시대 부산은 ‘독로국’과 ‘거칠산국’이라는 지역 단위의 정치체가 존재했다. 고대 부산은 평지가 적고 바다와 면한 지리적 조건상 해상을 통한 대외교류의 성격을 가진 개방성을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삼한 시기 즉 초기 가야 때는 인접한 김해 구야국과 함께 ‘철 소재’를 매개로 한 대외적인 교류 활동의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 대상 범위는 동북아 전체를 통괄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초기 신라 보다 정치·문화적으로 앞설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76)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4년 4월 시월.

삼국시대의 고대 부산은 북방으로부터 비롯된 4세기 전후의 혼란(8왕의 난, 동진의 성립, 선비족 탁발씨의 남하와 북위의 성립 등), 한군현의 소멸, 삼국의 정립 속에 낙동강 하류의 김해·창원·함안 등의 정치체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로 발전했다. 이 시기 부산의 정체체는 그 발전의 동력이었던 종래의 대외교류의 성격은 유지하지만 일본열도로 한정되는 등 점차 약화되고 내적 성장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고대 부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지만, 그 전조 현상은 ‘포상 8국의 난’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소위 고구려 남정으로 시작하는 5세기대의 부산은 고구려의 정치·문화적인 충격은 물론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 점은 인접한 김해·울산·양산 등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데, 신라 삼랑주간 박제상의 해상 활동과 거도의 우시산국·거칠산국 정복담은 좋은 예가 된다. 당시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하류의 여러 가야 정치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해양권 행사도 신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대 부산과 인접하여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에워싼 형세를 가진 김해와 양산의 정치체가 5세기 전반 즉 아무리 늦게 잡아도 후반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거칠산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바 삼국시대 김해, 부산, 양산 지역이 언제 신라에 편입되었는가 하는 점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6세기 전반의 고총고분 자체가 신라와는 전혀 무관한 가야의 정체성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지역 정치체의 존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5세기 중반 이후 낙동강 하류 가야 정치체의 동향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이 언제부터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 지배 방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 등을 세밀하게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에서처럼 그렇게 힘들여 강조할 것도 없이, 신라의 낙동강 하류 진출과 이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 시기는 6세기 전·중반이라는 점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지극히 상식적인 서술로서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국립중앙박물관, 『가야가 만든 고대 동아시아네트워크』(특별전 ‘가야본성’ 연계 국제학술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2019. 8. 29.
- 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下)』, 2001.
-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港都釜山』 34, 2017.
- 김양훈, 「삼한시대 변한권역 철기생산의 추이」, 『역사와 세계』 44, 2013.
- 金義煥, 『東萊古邑城址攷』, 『釜山の 遺蹟과 遺物』, 安龍福將軍紀念事業會, 1969.
- 金昌謙, 「新羅 中祀의 ‘四海’와 海洋信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 김창석,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 3~4세기 加耶聯盟體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16, 2012.
- _____,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 남재우, 『安羅國史』, 혜안, 2003.
- 東義大學校博物館, 『釜山望美洞 東萊古邑城』, 2006.
- 白承玉, 「比斯伐加耶의 形成과 國家의 性格」, 『韓國文化研究』 7, 1995.
- _____, 「가야사 연구성과를 통하여 본 부산의 고대사」, 『港都釜山』 18, 2002.
- _____,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2003.
- 白承忠, 「1~3세기 가야세력의 성격과 그 추이-수로집단의 등장과 浦上八國의 亂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3, 1989.
- _____, 「弁韓의 成立과 發展-弁辰狗邪國의 성격과 관련하여-」, 『三韓의 社會와 文化』, 韓國古代史研究10, 1995.

- _____, 『문헌에서 본 가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 12, 1998.
- _____,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변진독로국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18, 2002.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Ⅱ』, 1998.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당제』, 2005.
- 釜山博物館·釜山廣域市 蓮堤區, 『釜山城址-2016년 시굴조사 보고서-』, 2018.
-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萊城遺蹟』, 1990.
-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 제1권, 1989.
-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 _____, 『新羅國家성립과정에 있어서 小國爭疆』, 『역사와 경계』 49, 2003.
- _____,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발전』, 『港都釜山』 29, 2013.
- _____, 『한국 고대 동남해양사의 연구 동향과 그 과제』, 『石堂論叢』 66, 2016.
- _____,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해양교류와 형변』, 『港都釜山』 32, 2016.
- 吳建煥, 『完新世後半의 洛東江三角洲 및 그 周邊海岸의 古環境』, 『韓國古代史論叢』 2, 1992.
- 유우창,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港都釜山』 23, 2007.
- _____,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港都釜山』 34, 2017.
- _____, 『고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독로국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95, 2019.
- 윤용구,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 _____, 『馬韓諸國의 位置再論-漢簡으로 본 朝貢使行과 관련하여-』, 『지역과 역사』 45, 2019.
- 李炯基, 『阿羅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史學研究』 57, 1999.
- _____,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 (財)東亞細亞文化研究院,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2010.
-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 _____, 『상고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역사문화연구』 45, 2013.
- 朱甫墩, 『4~5세기 부산지역의 정치적 향방』,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제1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1997.
- _____,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7, 1983.

허재혁,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투고일 : 2019. 11. 11. 심사완료일 : 2019. 12. 06. 게재 확정일 : 2019. 12. 17.
--

| Abstract |

Foreign Exchanges in Ancient Busan through
Literature Records

Baek, Seung-Chung

This paper examines the emergence of ancient Busan political bodies and the nature and trends of foreign exchanges in the Samhan~Three Kingdoms Era, with a focus on the literature.

Since prehistoric times, Busan has been characterized by openness and oceans, and has a geographical condition as a gateway to inland through the Nakdong River. These characteristics define the historical character of Busan as well as pre-modern times.

In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Era, Busan had regional political bodies called the Dokroguk and the Geochilsanguk. Busan's "Dokroguk" during the Samhan period, or early Gaya, was the center of external exchange activities through "iron material" along with Gimhae Guyaguk. This was a factor that could lead the early Gaya politically and culturally over Silla.

However, in the 4th century, the ancient Busan of the Three Kingdoms Era focused on internal growth and the weakening of foreign exchange in the disappearance of Hanguhnyun and the establishment of Three Kingdoms. Furthermore, after the Namjeong of Goguryeo(400), Busan began to be directly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military damages from the Goguryeo and Silla Namjeong forces, as well as the Silla's advance into the Nakdong River.

This situation in ancient Busan coincides with the political trends of

neighboring Gimhae, Ulsan, and Yangsan. The maritime activities of Park Je-sang, the ruler of Silla in ancient Yangsan region, and the conquest tales of the Ushisanguk and Geochilsanguk of the island are well illustrated.

Some see the incorporation of Silla in ancient Busan as early and mid 6th century. This argument, however, fits with the merger of the Garakguk(532) and is merely an easy interpretation. At least in literature, it can be seen that since the mid-5th century, Busan's political body, Geochilsanguk, was not only influenced by Silla, but also the maritime event passed to Silla.

Keywords: Ancient Busan, Foreign Exchange, Dongnae(東萊), Dokroguk(瀆盧國), Geochilsanguk(居漆山國), Guyaguk(狗邪國)